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제1독서 : 예제34,11-12,15-17

제2독서 : 1고린15,20-26,28

묵 음 : 마태25,31-46

순정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애준 것이 바로 나에게 애준 것이다”

(마태 25, 40).

제9회 성서주간 담화문(요약문)

“새로운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천”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지 두번째 천년대를 보내고 세번째 천년대를 맞으려는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서 진영의 해빙과정이 그렇고, 상호간에 파괴와 전쟁 외에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가 최근 화해의 길목으로 들어선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정치적 변화는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민족분단의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남북으로 갈라진 동족이 서로 화해하고 조국이 하나로 통일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는 현 교황님이 역설하시고 가톨릭 성서연합 보고타 총회에서 주요 주제로 받아들인 “새로운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와 관련하여 때마침 성서운동이 전세계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제2의 성령강림처럼 불길과 같은 세력으로 번져가고 있음은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전체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이 성서운동을 어떻게 “새로운 복음화”로 연결시켜 현 세대의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아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성서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성서를 소개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해주는 셈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자기 형제 자매들의 곤궁에 눈을 감게 하며 서로 싸우고 헐뜯게 만드는 미움과 이기심의 담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 옛날 예리고의 담이 그랬듯이 미움과 이기심의 담은 한꺼번에 내려앉고 말 것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유와 정의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미움과 이기심의 담이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를 갈라놓고 같은 민족을 분열시키며 나라와 나라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때, 우리 세대가 비로소 성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즈음 교회 안팎에서 교회 건물과 신앙인들은 크게 늘어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세상에 소개하는 성서운동은 모를지기 이런 담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당과 거리, 기도실과 직장, 내 마음속의 고요와 사회의 웅달진 곳을 넘나 들며 불의와 부패에 찌든 이 나라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누룩이 되고, 삶의 방향마저 잃고 고달픈 인생살이에 신음하는 형제들에게 삶의 의미를 밝혀주며 그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려는 노력을 거듭할 때, “새로운 복음화”는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현실 안에서 구체적인 복음화로 열매맺기를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루가 6, 46-4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류로 하여금

강론

소리

“그리스도의 왕의 참된 백성”

장상호 신부/효자동 천주교회

가끔씩 찾는 공중 목욕탕에서는 사장, 거지, 대통령, 박사, 노동자, 농민, 잡상인... 신분, 지위, 빈부의 차이 없이 모두가 별거벗은 채 목욕을 한다. 서로가 동등한 인격으로 존재하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밀어주고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따뜻함도 존재한다. 목욕탕 안에서 만큼은 가식, 체면, 허영이 없이 서로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빛나간 모습을 본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모자란 사람,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려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 안에서조차 살아 꿈틀 거린다. 나는 신부님, 스스로를 권력과 명예를 지닌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만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분, 무섭고 엄한 분, 보통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며 황금마차를 타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는 왕,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대권을 쥐고 권위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지배하는 왕, 이러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별거벗은 몸에 가시관을 왕관으로 쓰고,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분의 왕권은 오로지 희생과 사랑으로 장식된 왕권이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동화 속의 왕(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져 별거벗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모인 집단이 아니다. 극진한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별거벗은 왕, 별거벗은 채 잘못된 허영과 위선과 권력의 때로 찌들은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왕, 이 왕을 모시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별거벗은 채 서로를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왕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사라져야 할 억압기구들”

새정부가 들어선 뒤 달라진 것도 많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다.

공직자 재산공개로부터 시작된 사정과 군부개혁, 금융실명제 등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은 과감한 개혁 조치들로 사회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좋기는 좋은 것이로구나 하며 새로운 개혁이 잇달아 군사독제의 잔재가 머지 않아 말끔히 청산되겠거니 하는 기대가 컸다.

또 새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개혁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에게는 개혁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고 아직은 집권 초기인 만큼 이 같은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빨리 달라져야 할 것들이 계속 속세로 미뤄지고 있어 답답한 느낌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반민주 악법에 바탕을 둔 폭력적 억압기구다. 법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관행도 온존하고 있다.

이 같은 악법과 가혹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을 탄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뿌리채 부정하는 군사정권의 가장 사악한 잔재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정치개혁이나 경제 발전보다 우선하는 문민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어야 한다. 물리적 힘에 의존하는 정부는 결코 문민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

숲정이 산책



우리 온돌 전기 패널

전북총판

- 우리 온돌은 에너지 저금통입니다.
- 2일치 연료로 3일을 땁니다.
- 24시간 따뜻합니다.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신대산업 ☎ 78-1363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축! 확장 이전

결혼예물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율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 82-9005

운장회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광석(야고보)

전민자(율리아)

중앙성당 ←→ 한양, 목원예식장

☎ 254-7533

5분교리 38

“신품성사(神品聖事)”

일곱 가지 성사 중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신품성사는 사제직분을 행할 수 있는 젊은 남성에게 베풀어지는 축성 예절이다. 사제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세상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세례 받은 평신도들 중에서 선발된 젊은이는 6-7년간의 신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부와 심신의 단련 및 영성적 깊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쌓는다. 긴 교육을 끝내고 하느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적합성 여부, 즉 건강과 지혜와 성덕을 인정받으면 사제로 서품(徐品)된다. 이때부터 신부(神父)님이라고 불리우는데 글자 그대로는 “귀신아버지”이나, “영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한 하느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성화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띠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직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예언직, 왕직, 사제직(성화직)이다.

예언직: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며 백성들을 깨우쳤듯이 예수님도 바로 그런 예언 사명을 행하셨다. 왕 직: 예수님은 다윗왕가의 후손이실 뿐 아니라 절대자 하느님의 왕다운 품위로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사제직(성화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성화되기 위한 은총의 중개자가 되었다.

오늘날 사제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골고루 다 잘 수행해야 한다. 사제들은 개신교 목사들에 비해 강론 준비(예언직)에 덜 정성을 들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는 아마도 예수님의 성화직분, 즉 은총을 얻는 성사집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옥에 가깝더니 착한 신부들이 많이 와 있더라.”는 우스갯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뜻인 즉 사제직분의 본질인 예언직(강론)을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자료: 신발을 신어도 땀니까(책) · 부름 받아 나선 이몸 · 다미안 신부(V.H.S)

교구 소식

※ 성서주간: 11월21일-27일, 성서를 매일의 양식으로 가까이 두고 읽읍시다.

- 1. 주교님 귀국: 11월22일(월). 2. 축! 건진: 11월28일(일) 오전10시30분 진안 성당.
3. 사제 총회: 11월25일(목) 오전10시 천호 피정의 집.
4. 천호 피정 안내: 11월23일(화) 주제-예수님과과의 만남, 강사-박종근 신부, 11월27일-28일 주제-하느님의 부르심, 강사-정환재 신부.
5. 고 3을 위한 피정: 12월11일-12일 나바위 피정의 집, 문의 85-0041(교육국).
6.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11월22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회의실.
7. 수화미사: 11월21일(일) 오후5시 가톨릭센터 별관.
8. 하나회: 11월28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별관.
9. 로사리오회 정기 총회: 11월28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10. 혼인강좌: 11월28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11.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1월26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박대덕 신부.
12. 크리스마스 썰 판매: 1매당 120원, 구입처-각 본당 사무실.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11월22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파워 오브 윈.

※ 축! 영명: 23일 (성클레멘스)윤양호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손수 옷을 만듭시다(2)

창조력을 발휘해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양과 그림을 직접 그리고 만들어서 개성적이고 예쁜 사랑의 옷을 입혀봅시다.

요십이 (1056) 김병오



사무장 구함

성실히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 구비서류: 이력서 1통, 세례증명서 1통, 본당신부 추천서 1통
· 연락처: (0652) 212-3231~3
천주교 동산교회

말씀 큰잔치

- 제9회 성서주간 -
93년 11월 22일-27일
특별합인
성바오로 서원
☎ (0652)252-3398

우리밀 제품(회원용) · 무농약 농산물 판매

☎ (0652) 85-4205

천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 남 수 지도신부 권 이 북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전북피아노사
각종 피아노 매매·조율·수리·운반 전문 센터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효자동 할매 곰탕집 앞
☎ 223-582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때: 11월 28일 오후 2시-5시
· 곳: 삼랑진 본원 (0527) 52-4241
· 준비물: 성서

미래세 천주성상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11.28 낮 12시-오후 3시 반
· 장소: 광주 가톨릭센터 401호
· 문의: ☎ (0334) 74-1251~2
· 대상: 수사신부, 수사 지망 학생 또는 일반인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1. 반회장 경질: 기린봉 아파트 2반-박길순(바아), 조선자(안나)
2. 부녀회 임원: 회장-이홍자(그레첸시아) 부회장-박향자(프란치스카) 최인자(스클라스티카) 총무-이윤희(안젤라) 서기-박윤순(유리안나) 회계-전경숙(요안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실리아회 정기 총회: 오늘 혼인식 후 교리실. 4. 유아세례: 27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5. 연도의 날: 24일 저녁 미사 후. 새 연도책 지참. 6. 사제 총회: 25일 천호(새벽미사)
7. 모임: ①대헌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제대회 총회(23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센시오(25일 전 10시30분) 8. 금주 청소: 중노3, 4반. **차주 청소: 중노5, 6반.**
- **지난주 봉헌금:** 996,990원 □ **교무금:** 1,65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구역미사: 22일(월요일) 오후 8시-종양2반, 23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진복2반, 오후 3시-고사1반, 오후 8시-다가동2반. 24일(수요일) 오후 3시-다가동1반, 오후 8시-다가동3반. 25일(목요일) 오후 3시-다가동5반, 오후 8시-태평동4반. 26일(금요일) 오후 3시-완산동, 오후 8시-진복1반.
2. 병자 봉성체: 26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 세례: 27일 오후 6시30분.
4. 회합: ①성우회-오늘 ②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③제대회-25일 오전 10시 ④빈센시오회(27일 오전 10시)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나경섭 부부 봉헌-김영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9,130원 □ **교무금:** 1,157,45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연중 마지막주일**
1. 모임: ①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울드레아-27일(토) ③성모회-다음주일
2. 성서주간: 오늘부터 27일까지.
3.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다음주일.
4. 제대꽃 봉헌: 이순열-1만원.
5. 유아 영세: 다음주일 오전 9시.
6. 축! 혼인: 21일 오전 11시30분: 신랑-이윤희, 신부-김은정(프란체스카). 오후 1시: 신랑-양수환(원선시오) 신부-허경자
7. 차주 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남현준 ②인행남 봉헌-이기봉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37,960원(137,600)
□ **교무금:** 11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1. 성모회: 11월21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사회전: 11월20일(토)-11월21일(일) 본당. 중, 고 사회전에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정 방문: 11월23일(화)-23반, 24반. 11월24일(수)-15반, 22반.
4. 사목회 임원 연수회: 11월28일(다음주일)
5. 11월25일(목) 미사시간 변경: 11월25일(목) 오전 9시로 변경(사제총회 관계)
6. 성탄 관공성사: 12월6일(월)부터 평일미사 전후 ※ 단 12월11일(토)은 초, 중, 고 학생들만 보고, 부모님들은 평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7. 레시오 연차 총친목회: 12월9일(목) 오후 7시.
□ **지난주 봉헌금:** 972,200원 □ **2차 헌금:** 439,650원
□ **교무금:** 1,04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1. 오늘 공식미사 후: 울드레아 총회(전원 참석바람)
2. 오늘 주일학교 위한: 2차 헌금.
3. 구역, 반 미사: 4구역2반-낙원 다동 402호 저녁 8시.
4. 형제의 뉘: 대림시기에 형제의 뉘으로 성미를 모읍시다.
5. 성탄 예술제 신청: 가족별, 반별, 단체별, 출연 희망자는 11월 말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6. 성서 필사대회: 부가복음 필사-모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람. ※ 성탄참고-의무임.
7. 청소 봉사: 4구역 3반,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750,000원 □ **교무금:** 1,06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1. 금주: ①바비의 성모 푸리아(후 2시) ②청년연합회 월례회(후 8시) 2. 성회회: 22일(월) 오후 6시. 3. 성지회: 26일(금) 오후 8시. 4. 차주: ②교무금 납부주일 ②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5. 감사합니다: 성당 히터 기증-왕궁가구(국장호-요셉) 연지문지(윤승이-카타리나) 6.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12월1일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12월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7. 글로리아 성가대 정기발표회: 12월4일(토) 오후 7시30분. 8. 돈-보스코회 임원 개편: 회장-홍재훈(요한) 부회장-박철호(그레고리오) 안현옥(모이세) 총무-전병규(마리아) 재무-김용만(요한) 9. 추계 관공성사: 대림 첫주간부터 시작(차주)
□ **지난주 봉헌금:** 1,961,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 **성서주간: 21일~27일 북을 나누기(롬코식) 공부기간**
1. L.M 단원 신서: 24일 11시 미사(수, 목, 토Pr) 저녁미사(일, 수 저녁Pr) 세상을 떠난 L.M 단원 연미사 봉헌.
2. 구역별 연도 대회: 22일 저녁 7시, 범위: 시편50, 찬미경 하나.
3. 관공 참고지(성서 문제지) 배부: 개인 관공성사 전 제출.
4. 회의: 성소후원회-24일, 울드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가정 방문: 23일 14-1반 전 9시, 14-2반 후 2시, 26일 14-3반 전 9시, 14-4반 후 2시.
6. 교무금 납부주일: 28일 93년 교무금 납입 확인하시고 본당 재정을 위하여 교무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 제대회 임원 개편: 회장-박혜경, 부회장-원옥자, 총무-임명자, 회계-이경남.
□ **지난주 교무금:** 1,349,590원 □ **교무금:** 1,096,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설 우
사목회장 한 병 갑

1. 전신자 등반 대회: 오늘 미사 후(오봉산) 회비-오천원.
2. 울드레아: 오늘 미사 후. 3. 구역장 월례회: 다음주일 미사 후.
4. 대림4주간 특강: 주일 낮미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6. 성가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7. 미사 안내: 새벽미사-오전 6시30분, 주일 저녁미사-오후 7시30분. 중고생 미사-토요일 오후 5시(다음주일부터)
8. 금주 청소: 오성은하. 차주 청소-화산2(B)
금주 전례: 이완자, 정준성. 독서-봉헌: 육연숙, 강희연. 차주 전례: 김희숙, 손규영. 독서-봉헌: 최숙자, 김기성.
□ **지난주 봉헌금:** 480,120원 □ **교무금:** 1,037,000원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삼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1. 푸리아: 24일(수) 오전 10시.
2. 꼬미시움: 27일(토) 오후 3시.
3. 성구회: 28일(일) 오후 2시 전선 테니스대회(해성고 테니스장)
4. 유아 세례: 다음주 오후 4시(미리 접수바랍니다)
* 다음주(28일)는 대림 제1주일면서 나(B)해가 시작됩니다. 미사 안내: 금주-중거자들, 자비의모후, 차주-사랑하움, 죄인 의피난처(미사안내자는 해당미사에 철저한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83,330원 □ **교무금:** 1,969,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 안내: 반회장 준비 모임-26일(금) 10시 미사 후.
2. 기정 방문: 24(수)-현대APT3반, 26(금)-호암.
3. 25일(목) 10시 미사는 9시미사로 변경(사제총회 참석)
4. 우선 신용협동조합 설립 준비(다음주 공식미사 후 실험 소개 교육)
차주 모임: 사목회, 요셉회
신축헌금 봉헌액: 30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민만호 ②신미향 봉헌 안내-강인성 부부
차주 전례: 해설-권정희. 독서①전문기 ②장선자 봉헌 안내-이수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455,440원 □ **교무금:** 2,830,000원